"한꺼번에 다 놓아버려라"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㊼ 타성

"대덕들이여! 그대들이 바랑과 똥자루인 몸뚱이를 짊어지고 옆길로 내달리며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니 지금 이렇게 내달리며 구하는 그것이 누구인지 아는가? 거침없이 활발하게 돌아다니지만 뿌리도 줄기도 없느니라. 손에 쥐어 모으려 해도 모아지지 않고 떨어 흩으려 해도 흩어지지 않느니라. 구하지 않으면 눈앞에 있어 신령스러운 소리가 귓속에 들어오니 만약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평생 헛수고만 할 뿐이니라.

여러분! 한 찰나에 바로 화장세계에 들어가며, 비로자나국토에 들어가며, 해탈국토에 들어가며, 신통국토에 들어가며, 청정국토에 들어가며, 법계에 들어가며, 예토에도 들어가며 정토에도 들어가며, 범부에도 들어가고 성인에도 들어가며, 아귀와 축생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곳곳에 들어가 찾아보아도 어디도 나고 죽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헛된 이름만 있을 뿐이니라. 허깨비나 허공의 꽃을 잡으려 하지 말라. 얻고 잃고 옳고 그름을 한꺼번에 다 놓아버려야 하느니라."

수행의 세계에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타성이 있을 수 있다. 〈임제록〉을 계속 읽어보면 임제가 바로 이점을 비판하면서 경책하고 있는 말을 자주 볼 수 있다. 선을 하고, 불법을 구한답시고 상투적인 흉내를 내며 타성에 젖어, 있는 자들을 사정없이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똥자루인 몸뚱이를 짊어지고 옆길로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정체부터 다잡으라고 한다. 공부란 실속 없이 외형적으로 모양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뿌리도 줄기도 없는 정체 모를 수행이 진정한 공부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이 장의 이야기도 식심(息心)을 강조한다.

화장세계, 비로자나국토 등 〈화엄경〉 용어를 인용하며 '한 찰나에 바로 들어간다' 는 것은 '입법계품' 의 선재동자가 손가락 한 번 퉁기는 사이에 미륵의 누각문을 열었다는 소식과 같은 뜻으로 사사무애법계 도리를 차용해 쓴 말이다. '한 번 뛰어 바로 여래의 땅에 들어간다(一超直入如來地)' 는 선의 지취를 나타낸 돈오(頓悟)의 이야기다. '돈오' 에 있어서도 돈오점수(頓悟漸修)의 돈오와 돈오돈수(頓悟頓修)의 돈오가 다르다. 규봉은 〈선원제전집도서〉에서 돈오점수의 돈오는 해오(解悟)이며 돈오돈수의 돈오는 증오(證悟)라고 하였다. 굳이 말하자면 이해해서 깨닫는 것과 체험해서 깨닫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가장 엄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령 "오온(五蘊)이 공(空)하다"고 〈반야심경〉에 말하고 있지만 현실을 의식할 땐 '오온개공' 은 뒷전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고도의 높은 수행의 경지에서는 현실 존재를 부정하는, 나고 죽는 생사(生死)가 없다고 한다. 임제도 찰나에 화상세계에 들어가면 어디에서도 생사를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생사가 헛된 이름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허깨비나 허공의 꽃을 잡으려 하지 말라고 또 말했다. 원래 이 말은 승찬의 〈신심명(信心銘)〉에 나오는 말이다. 〈신심명〉의 4구(夢幻空華 何勞把捉 得失是非 一時放却)를 인용하여 분발을 촉구하고 있다. 조주(趙州)의 '방하착(放下著)' 을 상기시킨다. '방하착' 은 조주와 관계된 유명한 선화(禪話)다. 임제와 조주는 같은 시대를 살았다. 다 같은 조주(曹州) 출신으로 동향인이었다.

엄양존자(嚴陽尊者)라는 사람이 있었다. 소문을 들으니 조주선사에게 가서 뭐든지 물으면 "놓아버리게(放下著)" 이 말 한마디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는 조주선사를 찾아갔다. 그가 물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온 사람은 무엇을 놓아버립니까?" 그 물음에도 조주선사는 또 "놓아버리게." 하였다. 엄양이 다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아버립니까?"

"그럼 짊어지고 가게나." "?...."

이 말에 엄양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이후로 '방하착' 은 선가의 유명한 명언이 되어 널리 퍼졌다.

조주가 임제를 찾아간 적도 있었다. 그때 마침 임제가 발을 씻고 있었다. 조주가 물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이오?"

"나는 발을 씻고 있는 중이오."

조주가 앞으로 바짝 다가가 귀를 기울여 듣는 시늉을 했다.

"구정물을 퍼부어야겠군."

조주가 얼른 돌아 나와 버렸다. 임제는 867년에 입적하고 조주는 897년에 입적해 임제보다 30년을 더 살아 120세에 입적하였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보름달 밝은 體 보리심과 같아



세상 속 경전읽기

㊼ 월륜관(月輪觀)

충남 태안의 신두리 해안 사구(砂丘)는 2001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도반들과 자주 해안 사구를 등에 업은 해변 사장(沙場)의 고운 모래를 밟으며 걷기 명상을 한다. 밀썰물의 해조음(海潮音)과 파도와 바람의 어울림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제일 먼저 바람소리가 구분되고, 이윽고 해조음과 파도소리가 구분된다. 그리고 해조음이 밀물소리인지 썰물소리인지도 구분된다. 해조음이 마음을 씻어주니, 고통 받는 중생을 위한 불보살의 설법 소리에 비유될 만하다.

계절에 따라 바다 가운데로 또는 섬의 산봉우리로 떨어지는 해와, 수시로 변하는 저녁노을 풍경,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 서둘러 사구 뒷산으로 떠오른 창백한 달이 어스름이 짙어갈수록 점점 밝게 빛나는 풍경 속에서 걷기 명상은 계속된다.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16관법의 초관(初觀)은 서쪽에 곧 지려는 해가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보고, 눈을 감으나 뜨나 그 영상이 분명하도록 하는 일상관(日想觀)이다.

수식관(數息觀)이 널리 행해지는 것은 호흡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늘상 보는 해나 달을 관(觀)하는 일상관이나 월륜관(月輪觀)도 그러한 맥락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1269년 송(宋)의 지반(志磐)이 지은 〈불조통기(佛祖統紀)〉는 천태종의 입장에서 석가모니부터 인도와 중국의 고승들의 전기와 계통 등을 서술한 책으로, 여기에 용수(龍樹)보살의 월륜삼매(月輪三昧) 이야기가 나온다.

"용수는 남인도에서 법장[法藏, 佛法]을 (제자인) 가나제바에게 부촉하고 월륜삼매에 들어 매미가 허물을 벗듯 입적하였으니 세수 300세였다. [龍樹。於南天竺以法藏付迦那提婆。入月輪三昧蟬蛻而去。壽三百歲]"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거의 누구나 어릴 때 밤길을 걸으며 달이 자기를 따라오는 경험을 하였을 것이다. 음력 초하루부터 보름까지의 차오르는 달은 백월(白月)이라 하고, 보름 이후 그믐까지의 이울어지는 달은 흑월(黑月)이라 한다. 월륜관 수행은 백월관(白月觀)이라고도 하며 백월을 대상으로 한다.

〈보리심론(菩提心論)〉은 중국 당(唐)나라 승려 불공(不空, 705~774)이 한역한 것으로, 용수(龍樹)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논란이 있다. 〈보리심론〉에 월륜관에 대한 내용이 있다.

"내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봄에 그 형상이 월륜과 같으니, 왜 월륜으로 비유하냐하면 이른바 보름달의 둥글고 밝은 체(體)는 보리심과 서로 같기 때문이다. 무릇 월륜에는 열여섯 가지 구분이 있다. 〈중략〉 무릇 달의 그 일분의 밝은 모양[明相]은 합숙(合宿)할 즈음엔 다만 해의 광명이 그 밝은 성품을 빼앗는 까닭에 나타나지 못하나, 나중에 초승달을 처음으로 해서 나날이 점점 더하여 15일에 이르면 원만하여 걸림이 없다."

〈金剛頂瑜伽中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論〉

월륜관은 달[月輪]에 갖추어진 깨끗함[淸淨] · 서늘함[淸凉] 밝음[光明]의 성질이 자성(自性) 곧 '내 마음의 실체[自心實體]' 와 같으므로, 달을 통해 나를 비롯한 일체중생이 백월과 같은 덕성을 가진 것임[心月]을 깨닫게 하는 관법이다. 초승달 이전의 완전한 어둠 1과 초승달에서 보름달까지의 15를 합해 16을 백월관(白月觀)의 대상으로 삼아, 가슴 속(또는 머리 위)에 1/16에서 16/16까지 달이 차오르는 모습을 관하고, 16/16인 15일(보름) 만월의 걸림없이 서늘하고 깨끗한 원만광명(圓滿光明)을 관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㊸ 깨침의 길 8

보리심을 향하여

〈菩提心〉

공부나 운동, 음악을 비롯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야 흥미를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 귀의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심(發心)이라 한다. 불교에서 발심은 깨치겠다는 마음(菩提心)을 내는 것이다. 깨침은 불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아무리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도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공부의 마음을 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보리심을 향한 여정에서도 이러한 예비 과정이 필요하다.

발심을 위한 환경 조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향(指向)과 지양(止揚)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이는 곧 새롭게 해야 할 일을 정하고 낡고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먼저 지향해야 할 일은 붓다(佛)와 가르침(法), 승가(僧)에 귀의하는 것이다. 삼보를 믿고 의지한다는 신앙고백은 보리심을 향한 첫 걸음이다. 불교의 모든 의식에서 삼귀의(三歸依)가 제일 앞에 놓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흔히 신심(信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는 붓다의 아들(佛子)이 되기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신심 없이 행하는 모든 수행은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아서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보리심을 내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쌓인 좋지 않은 습관을 버려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쌓인 탐욕(貪)과 성냄(瞋), 어리석음(痴)이라는 세 가지 독한 기운(三毒)을 버리는 일이다. 진리를 향한 여정에서 이런 독 기운을 짊어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겠는가. 마땅히 모두 버려야 몸과 마음이 가벼울 수 있다. 그러나 삼독을 버리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무의식 속에 습기(習氣)로 쌓여있었기 때문이다.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필요한 실천이 바로 참회와 발원이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욕심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실천은 깨침의 길을 가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초등학교 3,4학년 시절로 기억된다. 우리 집 화장실엔 유독 귀뚜라미가 많았다. 당시에는 화장실에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초와 성냥을 가지고 가야만 했다. 그런데 성냥을 그어 촛불을 켜면 여기저기서 귀뚜라미가 뛰어다녔고 손으로 잡으면 어느새 다리 한 쪽이 떨어져나가곤 하였다. 그러면 나는 손에 잡힌 귀뚜라미를 촛불에 태우면서 볼 일을 마쳤다.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그런 일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귀뚜라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하니, 어린 마음에 눈물이 나왔다. 나는 화장실에 가서 나만의 참회의식을 치렀다. 그것은 촛불을 켠 다음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일이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지만 손가락을 불 위에 올려놓고 떼기를 반복하였다.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뜨거운데, 귀뚜라미는 온몸이 태워질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 나는 아픈 손가락을 움켜쥐고 울고 또 울었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손가락이 너무 아려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귀뚜라미를 향한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다. 그 이후 귀뚜라미를 태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원각경〉에는 참회를 하면 마음의 경안(輕安)을 얻는다고 하였다. 그동안 쌓인 악업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이다. 마치 어깨 위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108참회를 마치고 명상에 들면 집중이 훨씬 더 잘 되는데, 이 역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함으로써 명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발심을 위해서는 삼귀의를 지향하고 삼독을 지양해야 한다. 참회발원은 이를 실천하는 좋은 수행이다. 이는 곧 보리심을 향한 예비단계라 할 수 있는데,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걷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법이다. 진리를 향한 첫 걸음도 그렇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만복승복(가사)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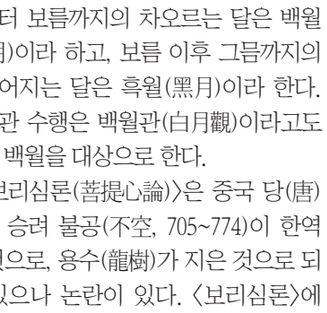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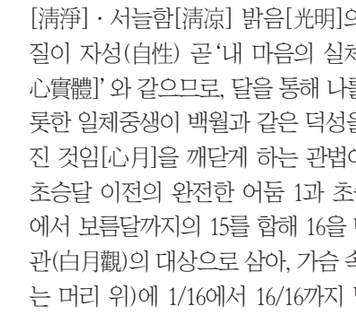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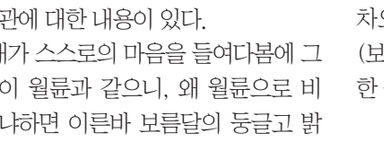


식물성 침향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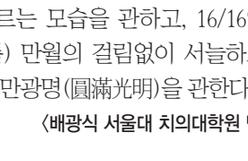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